삼성교회 소식

새가족 성경공부 및 환영회



지난 3주간 새가족 성경공부(6/8, 6/15)와 새가족 환영회(6/22)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가족 성경공부 인원은 총 16명이 참석을 하였고, 서영민 목사님께서 성경공부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 인원은 새가족 19명, 목회자 3명, 행정위원 6명, 구역장 7명, 새가족부원 4명 등 총 39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새가족분들의 자기소개와 간증들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삼성교회 교우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교회 새가족부-





삼성교회 연락처

+82 02-2293-4421

http://samsungch.or.kr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net

information@nasungchurch.net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61호

삼나소식

삼성교회 나성교회

2025년 6월 29일 SAMSUNGCH.OR.KR 61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24장 1-9절

날짜: 2025.6.15.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본문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골라 데려와 결혼시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이삭의 결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예표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늙은 종, 아들 이삭, 그리고 신부 리브가는 각각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 태어난 이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23장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끝을 의미하며, 24장에서 이삭이 신부를 만나 결혼하는 장면은 오늘날 이방인 교회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도 오랜 훈련의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 속에서 자아가 무너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버림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한몸이 된 부부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동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구체적인 장면 없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된 믿음의 삶에는 육신의 말이나 요구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면,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삶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것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한 몸이 되면, 모든 것은 그분께서 더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류와 나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혼과 몸을 통해 흘러나오도록 하여 그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을 순종해 가면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 그의 종이 하는 모든 일도 성령 안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알아보고 그녀의 가족에게 귀한 보물을 선물하며 아브라함의 집이 받은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은 기쁘게 딸을 보내기를 원했고, 리브가 역시 지체하지 않고 신랑을 만나러 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주로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들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필,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 안의 흑암과 반항이 점점 물러가고, 기쁨과 소망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리브가처럼 기쁨으로 종을 따라가듯, 재림하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전쟁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몸뿐입니다. 우리는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도 혼인잔치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된 삶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삶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기 위해, 즉 부활의 몸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서 혼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사는 중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교 회 후 원

우리은행
1005-602-532517
예수교대한웨슬레회삼성교회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사역자들(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 될 수 있도록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나성교회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순희 집사 – 아들(곽민준/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엄지 발가락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에 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박춘자 집사 – 급성 신우신염(세균에 의해 신장에 염증이 발생)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 목사님의 건강회복과 쾌유를 위해서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김묘자 권사(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경아 - 한국에서의 생활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풀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장로(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세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자궁암으로 전이되어 항암치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 과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피터 송 집사 - 아들(폴 송)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 교 소 식

멕시코 엔세나다 소식





샬롬!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교제가 있었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26일~30일, 5일간 애틀랜타 프래그쉽교회 청소년들과 김종규 목사님이 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 타지에서 이곳에 방문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단기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엔세나다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 도심을 바라보며 아직은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땅이지만 빛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땅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십여명이 모이는 교회학교 순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미리 준비한 음식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모이니 금방 마음을 나누었고 몸 된 교회로서 서로 기도로 중보할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센터 벽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그리스도를 표현한 벽화를 그리며 그 나무에 붙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길 소망하는 페인팅 시간도 가졌습니다.

셋째 날은 센터에서 멀지 않은 중증 장애인 시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기쁨의 찬양을 나누었고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에게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며 산책하는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농장 거주지도 방문하였습니다. 살아가는 환경과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예수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선교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귀한 간증과 고백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귀했던 고백은 "나에게는 선교는커녕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이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짧은 선교의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인원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소식 마칩니다. gracias!

임주영 목사

주간일정

삼나소식 모바일

http://samsungch.or.kr/samnanews